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심의품(心意品) ②

心無住戀 심무주식
亦不知法 역불지법
迷於世事 미어세사
無有正智 무유정지

마음이 멈추어 쉬질 않고
또한 참 법을 알지 못하면
온갖 세상 일에 미혹해져서
바른 지혜란 있을 수 없게 된다

念無遮止 염무적지
不絕無邊 부절무변
福能遷惡 복능악악
覺者爲賢 각자위현

생각이 고요히 쉬질 않으면
괴리에 괴리를 물어 끝내지 없게된다
복이 능히 악을 막나니
이 이치 깨달은 이 현명하다

佛說心法 불설심법
雖微非眞 수미비진
當覺逸意 당각의의
莫隨放心 막수방심

부처님께서 마음법 말씀하시길
비록 미묘하더라도 참이 아니라 하시니
마땅히 빛나는 생각 알아채어서
흐트러지는 마음을 따르지 말라

생각에 샅된 것 많으면 뉘 불러들이고
바른길에 힘쓰면 지은 복 그대로 남아

見法最安 견법최안
所願得成 소원득성
慈惠慈悲 혜호미의
斷苦因緣 단고인연

부처님법 따르면 더없이 편안하고
원하는 일도 이루게 된다
지혜로운이 미묘한 생각 잘 지켜서
괴로운 인연법을 끊는다

有身不久 유신불구
皆當歸土 개당귀토
形骸神去 형괴신거
處任可食 거주하담

이 몸이 있다하나 오래지 않아
모두들 흙으로 돌아가야 하네
형체는 사라지고 정신은 떠나나니
잠깐 빌어사는데 무엇을 탐하라

心豫造處 심예조처
往來無端 왕래무단
念多別勝 염다사벽
自爲招惡 자위초악

마음이 즐겨 짓는 갖가지 일

오고 가길 끝이 없나니
생각에 샅된 것이 많으면
저절로 악을 불러들이게 된다

是意自造 시의자조
非父母爲 비부모위
可嚮向正 가면향정
爲福勿怨 위복물회

내생각 스스로 지어내는 것
부모의 탓도 아니려니
바른 길로 부지런히 힘을 쓰면
지은 복은 없어지지 않는다

藏六如龜 장육여구
防意如城 방의여성
慧與魔戰 해여마전
勝則無患 승즉무환

육근 감추기를 거북같이 하고
마음 단속하길 성처럼 하라
지혜로 마구니와 싸워
이기면 아무런 근심이 없으리라

화향품(華香品) ①

孰能擇地 속능택지
捨捨取天 사감취천
善說法句 수설법구
如擇善華 여택선허화

누가 능히 살만한 땅을 가리되

지옥을 버리고 천계를 취할 것인가
누가 진리의 법구를 설하기를
좋은 꽃 가려 꺾듯이 하겠는가

學者擇地 학자택지
捨捨取天 사감취천
善說法句 선설법구
能採德華 능채덕화

공부하는 이 좋은 땅을 가린다
지옥을 버리고 천계를 취한다
그는 진리의 법구를 법답게 설하
를
좋은 꽃 가려 꺾듯이 한다

知世世難 지세세난
幻法忽有 환법홀유
斷魔華數 단마화부
不觀生死 불관생사

이 세상은 무너지기쉬운 흙덩이같고
허깨비 같은 법 잠깐 있는 줄 알아
마구니가 꽃뿌려 놓은 듯한 경계를
끊으면
그는 나고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龍眼

큰 스님 수행한담

“수미산만한 칠보 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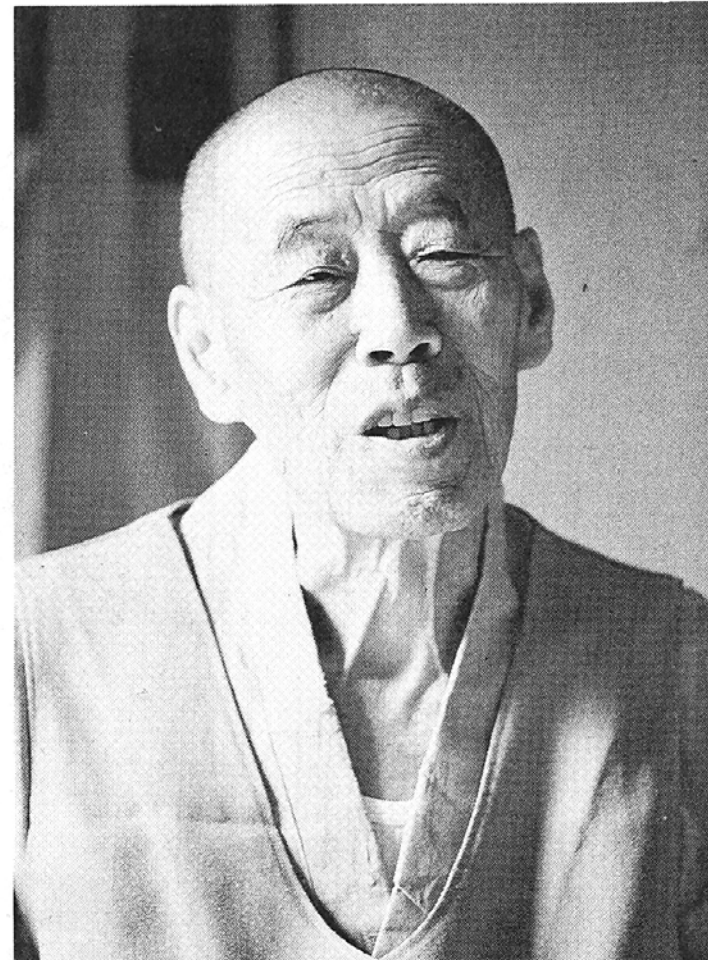
범룡스님 (동화사 비로암 한주)

여러분들은 '4난득(四難得)'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바로 그 4난득 때문에 출가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람 몸받기 어려우니 인생난득(人生難得)이요, 남자로 태어나기 어려우니 장부난득(丈夫難得)이며, 출가사문이 되기 어려우니 출가난득(出家難得)이요, 불법을 얻기 어려우니 불법난득(佛法難得)이 4난득입니다. 이말을 들은 것은 초등학교 2학년때인가,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교회로 다녔습니다. 교회다니면 술을 꿀꿀수 있다고 해서 나가게 된 겁니다. 어느 날 한 객승이 탁발을 왔어요. 선친께서 "우리는 예수 믿소. 탁발은 줄 수 없으니 이따 점심이나 사시러 오시오" 했습니다. 인연이 뒤흔고 했는지 점심시간이 되자 스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때는 조계종이니 하는 종단이 없었고 그냥 불교였습니다. 같이 공양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선친이 몇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도인은 누구인가" 스님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또 "불교가 뭐요?" 라는 질문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불교에 4난득(四難得)이 있다는데 그 4난득이 뭐요?" 물었더니 여전히 대답이 없어요. 그래 더 묻지 않는데 있어 버릴쯤 해서 대답을 하더군요. 그 스님은 "사람 몸받기 어려우니 인생난득(人生難得)이요, 남자로 태어나기 어려우니 장부난득(丈夫難得)이며, 출가사문이 되기 어려우니 출가난득(出家難得)이요, 불법을 얻기 어려우니 불법난득(佛法難得)이 그것이지요"면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오래 가슴에 남았습니다. 인생난득 장부난득을 했으니 불법난득을 해 보고 싶었고 쫓라 는게 한번 닦을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날 그 스님의 법문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싹이 트고 자라 결국 입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법보시란게 매우 중요하합니다. 꼭 법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불자들은 남을 위해 진심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짧은 말이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언제 어느때 인격변화를 일으킬 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삼천대천세계에서 가장 큰 산인 수미산만한 칠보들을 가지고 널리 보시하더라도 경전의 사구계(四句偈)를 받아 지녀 읽고 의우고 남을 위해 설해주는 공덕의 백천만억분의 일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22살때 금강산 유점사로 가 출가를 했어요. 선친이 교회에 다니시는 바람에 알리지도 못하고 그냥 떠나왔습니다. 얼마

후 집에서 편지가 왔는데 유가에서는 '출필고 반필면(出必告 反必面) 집을 드나들 때는 반드시 집안어른께 고함' 해야 하는법인데 말도 없이 그냥 떠났으니 일단 집으로 돌아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답장을 않고 그냥 있으니 한참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인생사 일장춘몽(人生事 一場春夢)'이니 네 뜻대로 하라는 내용이었지요, 허허.

은사이신 만허(滿虛)스님은 성품이 참으로 원만한 분이었습니다. 꾸짖거나 남을 비난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남이 싫어하는 소리를 하는 법이 없었지요. 그저 "깨끗이 하라"는게 전부였습니 다. 말없는 가운데 스스로 공부하도록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다 오대산 상원사에 계시는 방한암선사 회상에 갔습니 다. 당시 한암스님은 승려수련소를 설립하여 제방의 남자들을 받아들이고 있었 습니다. 당시 유점사 건봉사 월정사 선방

- 14년 평남 맹산 초
- 35년 유점사에서 만허스님을 은사로 득도
- 41년 상원사에서 방한암선사를 계사로 보살계 수지
- 56년 조계종 중앙총회의원
- 80~81년 동화사 주지 역임
- 94~96년 봉암사 조실
- 현 동화사 비로암 주석



경전내용 요약하면 戒定慧로 귀결
계는 身口意로 짓는 악업 막고
정은 산란한 마음 머물게 하고
혜는 진리를 깨닫는 지혜입니다

을 3대 선방으로 쳤는데 각기 해마다 10명씩 선발하여 승려수련소로 보냈습니 다. 승려수련소에 2년간 머무르다 말 그 대로 운수납자가 되어 전국의 이름난 선방을 죄다 찾아 다녔습니다. 전라도 경상 도 충청도 평안도 강원도 등 하도 많은 곳을 다녀서 일일이 기억할 수도 없어요. 묘향산의 보현사에도 두 번이나 갔고 통도사 극락암, 해인사 백련암 등 공부가 되겠다 싶은 곳은 다 다닌 셈이지요. 물론 전국을 걸어 다녔습니다. 교통이 안 좋았던 까닭도 있었지만 탁발하면서 행

추를 막 썰어 넣고 비벼서 퍼다 먹었습니다. 공양하느라고 다 모여서 먹는데 니 홀로 좌선에 들었지요. 처음 한시간과 공양하는 1시간, 그리고 또 한시간을 합쳐서 모두 3시간이 잠깐 사이에 흐르더군요. 남포불이 어른거리는 방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이 앉아 있었지요. 나가 하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도반들이 저는지 죽었는지 확인한다고 가까이 와서 눈을 들여다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 눈이 좀 작습니까? 그러니 들여다보 나 마나지, 허허허. 경행을 하느라고 할 수 없이 가부좌를 풀고 일어났습니다. 대중들과 함께 생활하다보니 마음껏 앉 아있기란 불가능했지요. 어쨌든 그때 비 로소 선정삼매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느 낄 수 있었습니다.

해제를 앞두고 1주일간 용맹정진을 하 는데 잠근죽비를 딱 한번 맞았습니다. 죽 비를 한번도 맞지않은 스님도 있었는데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정진을 매 손 게 하는 스님이었지요. 그렇게 열심히 용 맹정진하는 스님들이 많아 불교가 집 되는 거예요.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카메라, 편집, 녹음, 중계 시설 등을 완벽 하여 풀고계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한차 원 높여 첨단 사회 환경에 걸맞도록 하 였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빠른 정보, 최고 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 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 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 구에게나 개방된 부다피아의 정보력, 기술 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롬-타 이틀과,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사찰영상 제작물 기획·제작
-사찰의 역사, 배출한 인물, 고승 법문 등 사찰의 모든 것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사찰·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삼의 현장,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가야 할 21세기 포교 수행 환경에서 보다 효 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홍보물 제작

•사찰·불교 단체 행사 촬영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린 행사 촬영·중계
-고승법회, 고승 법문 비디오 테이프 제작

•법회·행사 기획·연출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불교 신자 들의 신앙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 획·연출

•어린이·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현대불교신문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포교, 수행에 걸맞는 종합불교언론사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HYUNDAI PRODUCTION

- 주소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2-1 강남B/D 202호
- 전화
(대) 02-737-8881 / (직통) 02-305-9320
- 팩스
02-375-4143

